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12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음 깨기

인생의 굴곡

교회행사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나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때는 언제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1_ 자신이 마주한 한계는?

2_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12월

- 10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 24일 성탄전야
- 25일 성탄
- 31일 송구영신예배

1월

- 1-5일 새해 말씀과 기도
"이지용 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사경회_요한계시록 추가 다스리신다"
- 7일 신년 예배
- 8-20일 태국단기선교/예수밀림축제

경배 찬양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하셨네

선교

[김용기 선교사]

필리핀

1. 그레이스 초등학교 학생들이 1:1 결연을 통해 영적인 양부모들이 맺어져서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지도록
2. 그레이스 크리스찬 초등학교에 좋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3. 선교예수 마을 공동체가 완공도에 필리핀 땅이 선교의 나라가 되는 선교센터가 되도록
4. 여호수아 훈련생들에게 '에! 성경' 강의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시도록

한문장 큰 울림

소식

1. 요람

2024년 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및 사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사무실,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굿월 센터

굿월센터 유학생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식사 준비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문의 : 제혜금 집사 010-5826-4150)

3. 사.교.시

(사실 교사 교육의 시간이 필요해) 교사 세미나 및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12/5 => 저녁 7시30분 다윗의 노래 & 12/13(수) 교사 헌신예배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1926-2015)
'전능자의 그늘' 저자,
에라도르 선교사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은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드러납니다. 규범적 지혜 / 반성적 지혜의 사이에서 욥은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있으나 답이 없는 상황, 해야 할 것은 있으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마음 속에 번민하지요. "지혜"에 대한 관점 역시 세 친구와 욥이 다릅니다. 우리는 삶 속에 이처럼 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_지혜는 주문이 아니다

세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이만큼을 투입하면, 그 이만큼에 대한 '대가'를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노력, 선한 삶'을 투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축복,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지혜를 세상에 펼치시며 행하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23절) 의 고백은 그 지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시기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 친구들의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마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나를 만족케 하고, 행복케 하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같은 욕망이 가득한 주문이 아닙니다.

[나눔] 오늘 나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눔]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었나요?

2_지혜는 삶으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상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 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여서 자신이 겪기 싫은 것을 면제 받으려는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하여 인내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말을 들어도 삶이 없는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마 11:19) 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붙잡고 그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합니다.

[나눔] 지혜를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해야 할
오늘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나눔] 오늘 나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3_지혜,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같은 고민과 애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상에서 실제로 제대로 믿기 위해 부딪히고, 실패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 있으면서 나는 이미 잘 서 있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고통과 치절한 실패의 자리들을 온 몸으로 감당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다시금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진정한 지혜로, 마주한 상황을 뛰어넘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깊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높으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며 견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마주한 장애물, 어려움들을 견디며 나아가는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